

|       |                                             |       |                                                  |
|-------|---------------------------------------------|-------|--------------------------------------------------|
| 보도 일시 | 2023. 1. 12.(목) 11:30<br>2023. 1. 12.(목) 석간 | 배포 일시 | 2023. 1. 12.(목)                                  |
| 담당 부서 | 정책기획관<br>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홍경의 (044-202-7026)                           |
|       |                                             | 담당자   | 서기관 백석현 (044-202-7027)<br>사무관 신솔원 (044-202-7028) |

##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 공정·법치의 노동개혁 원년, 전 직원과 함께 성공적 완수 결의 다져 -

□ 노동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 중대재해 등 핵심과제 국민 체감 노력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12일(목) 11시 30분,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의 주요 간부들과 공유하고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지방관서 기관장만 참석하던 회의와는 달리 국민 최접점에서 산업안전·노사관계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서 과장급(서기관·사무관)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단순히 본부가 지방관서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이행을 당부하는 형태를 떠나, 각 주요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우선, 지방관서에서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여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것 또한 노동개혁의 일환이므로, 올해는 국민들이 일터에서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방관서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생생하게 공유하면서 현장의 실태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것을 본부에 요청했다. 또한, 상반기 중 노동규범 현대화,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을 위한 입법안 마련 및 입법예고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이제는 노동개혁을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음에 공감하면서, 3대 구조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빨리 성과를 내고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붙임 2】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요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 인사말 ]**

-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몇 년동안  
본부와 지방이 함께하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특히,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과장들까지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 지난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열렸습니다.
- 세계적인 기술발전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CES의 올해 화두는 ‘초연결’ 과 ‘모빌리티’ 였다고 합니다.
  - 일본의 소니와 혼다가 합작한 전기차 ‘아필라’ 가  
대표적인 사례로,
    - IT 기업과 완성차 업체가 초연결을 토대로,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기반의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기술, 산업, 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해내지 못하면  
단순히 국내 시장에서의 일자리 문제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약화,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 [ '23년 업무추진계획 주요내용 및 대통령 말씀]

- 우리부는 지난 1월 9일,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2023년 고용노동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을 주제로,
  - 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
  - ②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 ③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세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우리부 업무계획에 대해,
  - 3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수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 이러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 공정을 확립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배가 시속 1Km로 가면  
내가 배 위에 있는건지 섬 위에 있는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 개혁의 원칙과 내용 및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 [ 전직원 당부사항 ]

- ☐ 이에, 우리는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겠습니다.
- ☐ 오늘 모인 지방관서장을 비롯한 현장의 주요 간부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첫째, 산업 현장 일선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업무보고에 우리 근로감독관 한 분이 참석해서  
MZ세대의 등장으로 현장의 경제활동 주체는 젊어지는데,  
노사의 의식과 관행, 규범은 낡아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우리 관서를 점거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에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나,  
우리에게는 법·제도가 완비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올해는 본부-지방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치주의 확립에 나서야 합니다.
- 노동조합 재정상황 자율점검,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에 대한  
기획감독 등은 역대 최초로 시행하는 조치로,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둘째,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으나,  
지난 한 해 중대재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 특히 지난해에는 SPL 끼임사고, 현대아울렛 화재사고 등  
국민의 공분을 산 재해들도 이어졌습니다.
- 이에 우리는 과거의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이뤄내고자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야 합니다.
- 더불어, 3대 사고, 8대 요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독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우리의 수단을 총 동원하여  
중대재해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후 ‘일터의 안전’ 과 관련하여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안된다” 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통해 변화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일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한 만큼,  
현장에서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 셋째, 올해는 다수 연구기관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해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고용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본부 차원에서 범부처 일자리 TF 가동을 통해  
노동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 산업전환, 그리고 지역별 주력 산업의 차이 등으로  
고용 둔화는 업종·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 이에 지방관서에서는 고용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고용 악화가 감지될 경우 본부와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마무리 발언 ]

- 우리부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변화하고 도약했습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서 노동부, 그리고 고용노동부로 발전해왔고, 지난해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지금 우리부 앞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증주소 개선 등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3대구조 개혁의 첫걸음인 노동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놓여있습니다.
- 큰 배가 넓은 바다에서 속도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려면 엄청난 물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 저항을 이겨내고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선장은 물론 기관실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정해진 목적지를 함께 바라보며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내야 합니다.
- 지금 노동개혁 원년의 출발점에서 본부-지방관서가 하나되어 박차를 가하고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갑시다.
- 감사합니다.

**붙임 2****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요**

- **목적** : '23년은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방향 공유
- **일시** : '23. 1. 12.(목), 11:30 ~ 16:30
- **장소** : 고용노동부 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지하대강당
- **참석** : 장관, 차관
  - (본부) 기조·고용·노동실장, 산안본부장, 국장 및 주요과장 등 약 47명
  - (지방관서) ① 48개 지방관서장
    - ② 대표청(6개청) 센터소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 ③ 노사상생지원과장,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등 총 73명
- **진행계획(안)** ※모두 발언까지 공개

| 시간                   | 세부내용                 | 비고               |
|----------------------|----------------------|------------------|
| 11:30 ~ 11:40 (10')  | 모두 발언                | 장관               |
| 11:40 ~ 12:00 (20')  | <본부> '23년도 주요 고용노동정책 | 기획조정실장           |
| 12:00 ~ 12:30 (30')  | <고용> '23년도 고용전망과 과제  | 고용정책실장           |
| 12:30 ~ 14:00 (90')  | 오찬                   |                  |
| 14:00 ~ 14:30 (30')  | <산안> 중대재해 감축 추진과제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 14:30 ~ 16:15 (105') | <노동> 노동개혁 관련 토의      | 노동정책실장,<br>全 참석자 |
| 16:15 ~ 16:30 (15')  | 마무리 말씀               | 장관               |